

# 전북 수산식품, 수도권 소비자 입맛 사로잡다

### ‘일산 메가쇼 시즌1’ 참가해 공동관 운영... 1억원 실적 달성·판로 확대 성과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 수도권 소비시장을 겨냥한 대규모 박람회 참가를 통해 전북 수산식품의 경쟁력을 알리며 판로 확대 성과를 거뒀다.

전북도와 바이오진흥원은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킨텍스에서 열린 ‘2026 일산 메가쇼 시즌1’에 참가해 전북 수산식품 공동관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도내 해양수산 분야 기업 10개사가 참여해 수도권 소비자와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지역 농수산식품의 우수성을 선보였다.

공동관은 ‘갯 만든 신선함!’, ‘살아 숨 쉬는 전북의 맛!’을 슬로건으로 내세워 전북 수산식품 특유의 신선함과 지역 고유의 맛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소비 트렌드에 맞춰 가정간편식(HMR), 밀키트, 수산가공품 중심의 시식·체험형 프로그램과 현장 이벤트를 강화해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바이오진흥원은 행사 기간 동안 공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킨텍스에서 열린 ‘2026 일산 메가쇼 시즌1’에 참가해 전북 수산식품 공동관을 운영했다.

동관 운영은 물론 시식 행사와 현장 프로모션 등을 지원하며 소비자 접점을 확대하는 데 집중했다. 그 결과 약 8,600만 원의 현장 매출과 1,300만 원 규모의 계약 성과를 기록해 총 1억 원

가량의 실적을 달성했다. 참가기업인 식도라푸드 관계자는 “수도권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제품 경쟁력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며 “간편식과 수산가공식품에 대한

반응이 긍정적으로 나타나 향후 유통망 확대와 신규 거래처 발굴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은미 원장은 “이번 메가쇼는 전북 농수산식품의 상품성과 시장 경쟁력을 수도권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었던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도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판로를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마케팅과 유통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채중석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도내 농수산식품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행사 기간 참가기업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수도권 시장 진출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유통망 확대 방안, 마케팅 지원 강화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바이오진흥원은 이를 바탕으로 박람회 지원사업 확대와 함께 지속적인 홍보·마케팅 및 유통 연계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 중기부, 혁신기업 최대 1억원 지원

### ‘모두의 챌린지’ 뷰티·플랫폼 분야 참여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모두의 챌린지’ 사업의 뷰티·플랫폼 분야 참여기업 모집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중기부는 화장품·플랫폼 대기업과 인공지능(AI) 기반 창업기업 간 협업을 지원하는 ‘모두의 챌린지’ 뷰티·플랫폼 분야 프로그램을 19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 가운데 ‘뷰티’ 분야는 화장품 대기업의 데이터와 인프라를 활용해 AI 기반 제품·서비스 혁신을 추진하고, 해외 시장에서 K-뷰티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수요기업으로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한국콜마 등이 참여한다. 주요 협업 과제는 개인용 뷰티 의도기기 기술 개발, 바이오·트렌드 데이터 기반 향노와 소재 탐색 AI 플랫폼 구축, 다인종 피부톤 컬러 발색 예측 모델 개발 등이다. /오상근 기자

중기부는 해당 분야에서 총 15개 창업기업을 선정해 최대 1억 원의 협업 자금을 지원하고, 대기업의 해외 유통망과 마케팅 채널을 활용한 판로 확대도 지원할 계획이다.

‘플랫폼’ 분야는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뱅크, 토스 등 플랫폼 기업과 협력해 소상공인 경영 지원 AI 솔루션 개발을 지원한다. AI 기반 매출·수요 예측과 광고·마케팅·금융 서비스를 통합한 경영 최적화 시스템 구축이 핵심이다.

주요 과제로는 △키카오T 관심 지점 검색 연계 AI 비서 △소상공인 매출·고객 분석 기반 AI 마케팅 솔루션 △AI 금융 어드바이저 플랫폼 개발 등이 제시됐다.

플랫폼 분야에서는 총 10개사를 선정해 최대 1억 원의 협업 자금을 지원하며, 우수 성과물은 실제 플랫폼 서비스에 탑재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기업은 5월 19일부터 오는 6월 8일까지 K-스타트업 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오상근 기자

# 장수군 레드푸드 기업 역량강화 나서

### 전북테크노파크·캠틱종합기술원, AI 활용 실무교육 등 통해 경쟁력 강화 지원

전북테크노파크와 캠틱종합기술원이 장수군 레드푸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무 중심 교육을 진행하며 지역 특화산업 육성에 나섰다.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규택)와 캠틱종합기술원(원장 노상훈)은 18일 장수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장수군 시군구 연고산업육성사업의 일환으로 ‘기업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장수군의 대표 특화 자원인 레드푸드 산업 관련 기업들의 비즈니스 경쟁력을 높이고,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장수군 소재 레드푸드 전·후방 기업 대표와 관계자 15여



전북테크노파크와 캠틱종합기술원은 18일 장수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장수군 시군구 연고산업육성사업의 일환으로 ‘기업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했다.

명이 참석했으며, 사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실무 중심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오상근 기자

주요 교육 내용은 △고객 가치 제안을 통한 사업 아이템 선정 △수익 구조 최적화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BM) 수립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AI 기반 실전 사업계획서 작성 교육은 현장 참가자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았다.

교육 종료 후에는 별도 상담부스를 운영해 기업별 맞춤형 1대1 상담도 함께 진행했다. 사업 담당자들은 현장에서 기업들의 경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재 진행 중인 2차 지원기업 모집과 관련한 신청 절차와 지원 항목 등을 안내하며 밀착 지원에 나섰다.

한편 장수군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은 현재 레드푸드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2차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 중이다. 선정 기업에는 맞춤형 컨설팅, 시제품 제작,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 국민연금공단, 미국연금 대면 상담 서비스 운영

국민연금공단이 미국 사회보장청(SSA)과 함께 국내 거주 미국연금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미국연금 대면 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5월 18일부터 나흘간 전주 본부와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미국 사회보장청과 공동으로 미국연금 상담·신청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미국연금 신청과 계좌 변경, 생존 확인, 주소 변경 등 미국 사회보장제도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전 신청한 6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오상근 기자



올해 상담은 18~19일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 21~22일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진행된다. 또 18일에는 양 기관 회담도 열려 한·미 사회보장협력 이행 현황과 고객서비스 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 국내 반려동물·가축서 조류인플루엔자 미검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지난해 국내 반려동물과 포유류 가축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모니터링 결과 감염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개·고양이와 소·돼지·염소 등

포유류를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와 항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시료에서 음성 판정이 나왔다.

최근 해외에서는 포유류 감염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2024년 이후 젓소 농장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며 다수의 인체 감염 사례

까지 보고됐고, 올해 초에는 네덜란드 젓소에서 항체가 검출됐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선제적 감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검역본부는 2018년부터 매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기존 돼지와 개 중심 감시 체계를 확대해 개·고양이·소·돼지·염소 등 5개 축종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국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와 협

력해 젓소 원유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도 병행하고 있다.

올해 검사는 총 7,568마리의 포유류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가운데 3,685마리는 유전자 검사, 3,883마리는 항체 검사를 받았으며, 농장과 집유 차량의 원유 3,787건에 대해서도 바이러스 검사가 실시됐다. 검사 결과 모든 시료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오상근 기자

# 전북농협, 식품안전 담당자 실무역량 강화 교육 실시

전북농협이 도내 농·축협 경제사업장 식품안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무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전북농협(본부장 김성훈)은 지난 14일 지역본부에서 도내 농·축협 경제사업장 식품안전 담당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식품안전 및 농산물 원산지 표시관리, 농식품부우처리 순회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식품을 취급하는 경제



사업장 관리자들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운영되고 있다. /오상근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